산업통상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16.(월) 10:30 < 11.16.(월) 석간 > 배포 2026 11. 13(금)

노·정·국회가 한자리에...신뢰와 소통으로 속도 내는 공공기관 혁신 방안 모색

- 산업부 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와 간담회 개최 -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11월 16일(월)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공동으로 산업부 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의장 이상주, 이하 산공노협) 소속 13개 기관 노동조합 대표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은 M.AX 등 첨단산업 육성, 자원 공급망 위기 대응 등 주요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핵심 파트너이다. 특히 지난 9월 30일 공식 출범한 산공노협은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현장에서 실현하는 주역들로,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관련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정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틀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공노협은 △공공기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구성원 의견수렴과 정례적인 소통 채널 마련 △기능개혁, 지방이전 추진 시 기관별 특성과 근로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보장 △기관별 업무량에 맞는 적정 인력 확보 등을 요청했다.

김성원 위원장은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은 첨단산업 육성과 자원 공급망 대응같은 산업 정책을 현장에서 완성하는 주체”라며, “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산업부와 공공기관 사이의 신뢰와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속도는 정부가 정하지만, 정책의 성패는 현장이 가른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고,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계획에 담기도록 국회에서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산업부와 공공기관 모두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존재의 의미가 있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최근의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극복해 나가는데 한 목소리로 협력해 나가야한다.”고 당부하였다.

이어, “산업부는 개별 기관의 현안들은 각 기관장들과 긴밀히 협의해 해결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기능개혁, 지방이전 등 공공기관 혁신 과제들은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철영 (044-203-5530)
		담당자	사무관	조문규 (044-203-5533)
			사무관	심원용 (044-203-556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간담회 개요**

□ **일 시** : 11.16(월) 10:30~11:30

□ **장 소** : 산중위 소회의실

□ **참 석 :** **[국회]** 김성원 위원장

[산공노협] 소속 노동조합 위원장

[산업부] 장관

□ **주요내용 :** 공공기관 주요 정책 관련 노·정·국회 소통

□ **세부일정** ※ 산업부 장관 모두발언까지 공개

시 간		내 용	비 고
10:30~10:35	5′	▸ **모두발언**	김성원 위원장
10:35~10:40	5′	▸ **모두발언**	산업부장관
10:40~11:30	50′	▸ **공공기관 노조 발언 및 토론**	참석자